



채찍 없는 성장평가에 9연속 ‘미흡’ 기업 배출

동반성장지수 평가 9년 명단 분석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토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타타대우상용차 9회 연속 ‘미흡’
에스트라오토토티브시스템 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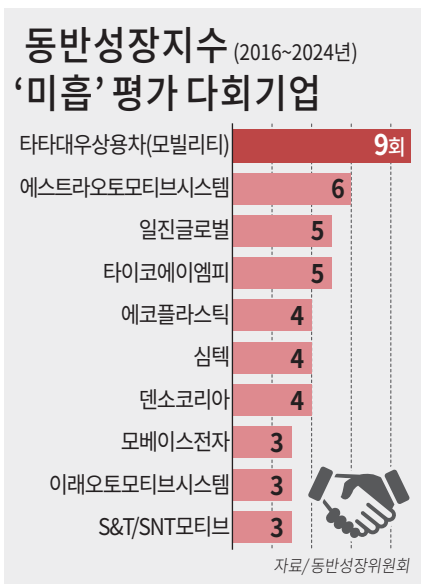
동반성장위, 우수기업 인센티브
“법적인 권한 없어 채찍질 불가
여러채널 통해 하위기업 권유”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트럭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토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 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레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자·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레오토토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철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근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리창 만난 李 “韓·中관계 발전의 전기 되자”

시진핑 이어 권력서열 2위와 오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에 대해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행정부를 총괄하는 리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웃은 새 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며 “(리 총리가)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6일(현지 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께서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신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대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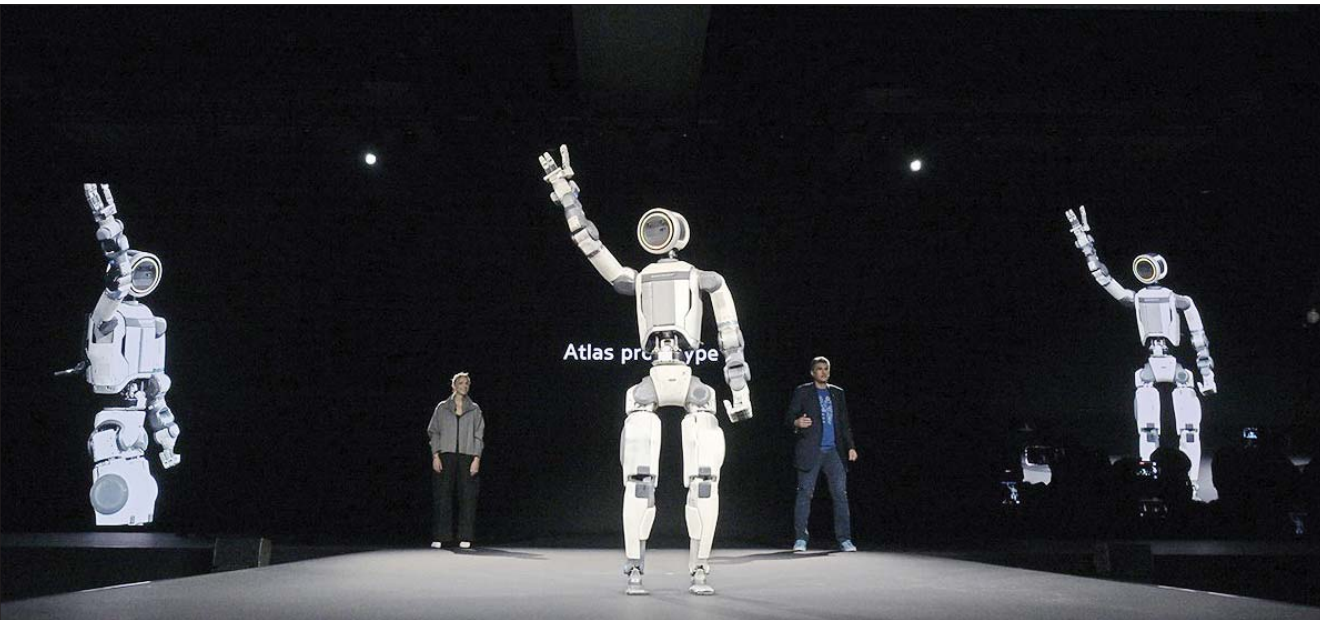
이어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가며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중은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오랜 친구처럼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획기적 한중관계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보스턴다이나믹스 야아 더빈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왼쪽), 보스턴다이나믹스 잭 재코우스키 아틀라스 개발 총괄이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로봇틱스 기반 ‘AI 선도기업’ 발돋움

CES 2026 참가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로봇틱스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고도화를 통해 인류의 진보를 선도하는 ‘AI 로봇틱스’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신기술 공개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 팩토리를 연결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AI 로봇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 Partnering Human Progress’를 주제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호세 무뇨스 현대

차 사장,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인간 중심 AI 로봇틱스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제조 환경에서 시작되는 인간과 로봇의 협력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구축하는 AI 로봇틱스 생태계 ▲AI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3가지 주요 전략을 발표하고 인류를 위한 AI 로봇틱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로봇틱스 전략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은 그룹 밸류체인과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인간 중심의 피지컬 AI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로봇틱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 실제 환경에서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기술의 실체를 말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확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모빌리티 제조, 물류, 판매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현대차·기아), 철강(현대제철), 부품(현대모비스 등), 방산·철도(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실제 현장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에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또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송언석, 국방비 1.3조 미지급 논란에 “그야말로 일빠진 정부”
/사진 뉴시스
▲輿의원 68인 “美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제 평화 위협”

▲한중, 기후변화 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환경협력 강화 추진
▲통일부 “김주애 최근 모습, 후계구도보다 ‘사회주의 대가정’ 강조”

▲국방부, 합참 계엄상황실 구성·선관위 출동 10여명 수사 의뢰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 임명 하루만 사의…명단 공개 논란